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SOUTHEAST ASIA

동남아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6/22~06/28

1. 동남아 물류 허브 경쟁 심화: 싱가포르의 항공화물 행사 유치 및 베트남의 항공화물 파트너십 확대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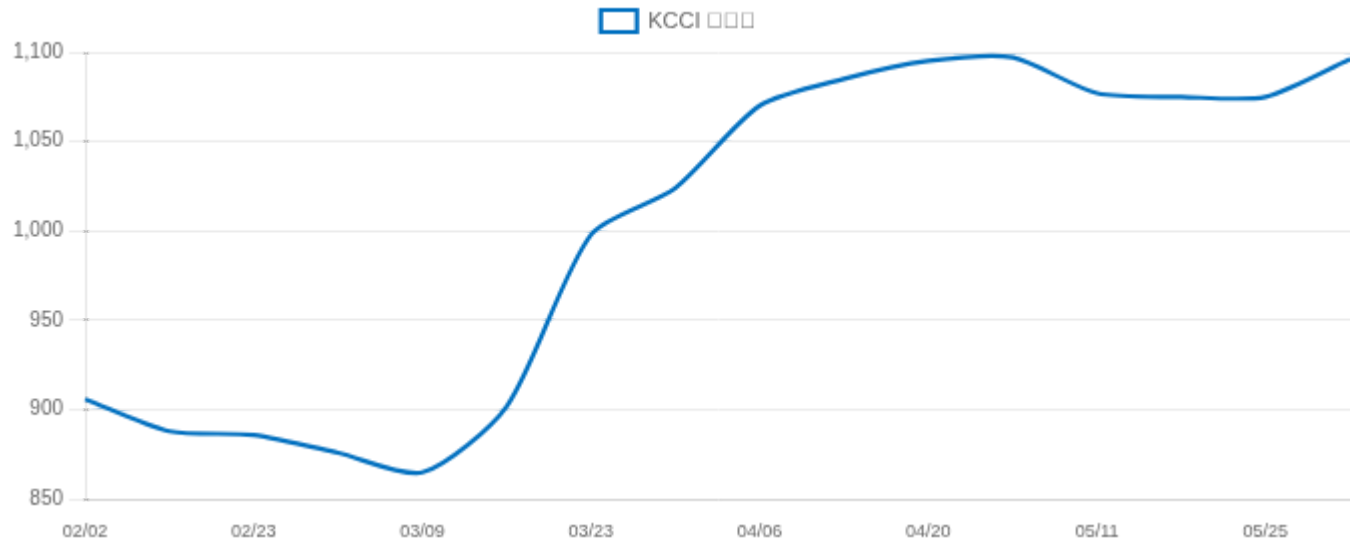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동남아 권역에서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항공화물 분야에서 각각 국제 행사 유치와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하며 물류 허브 경쟁이 심화되는 흐름이 나타남. 이는 역내 물류 네트워크가 다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싱가포르의 국제 항공화물 행사 유치는 기존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베트남의 파트너십 확대는 신흥 물류 시장으로서의 성장 의지를 반영함. 이러한 경쟁은 향후 동남아 지역의 물류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고도화를 촉진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간 유치 경쟁으로 인한 과열 양상도 예상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동남아	1,096 \$/FEU	06/22	-5.0%	+2.0%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6/22

동남아 물류 허브 경쟁 심화: 싱가포르의 항공화물 행사 유치 및 베트남의 항공화물 파트너십 확대

싱가포르가 국제 항공화물 행사를 유치하고 베트남이 한국 시장에서 화물 대리점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물류 허브 경쟁이 심화됨.

싱가포르는 TIACA Executive Summit 2027을 유치함. 이 행사는 40개국 이상에서 350명 이상의 항공화물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전자상거래 등 주요 이슈를 다룸. 이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항공화물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임.

베트남항공은 한국에서 ECS Group을 화물 총판대리점(GSA)으로 지정함. 한국은 베트남항공 네트워크에서 세 번째로 큰 화물 시장이며, 이번 제휴는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신선식품 등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임. ECS Group은 판매, 용량 관리, 디지털 서비스 등을 담당함.

싱가포르의 행사 유치와 베트남의 파트너십 확대는 동남아 국가들이 항공화물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싱가포르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입지를, 베트남은 제조기지로서의 성장을 활용하려는 전략임. 이는 지역 내 경쟁을 촉진하고 물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할 것임.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내 교역 증가와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수요 대응으로 분석됨. 특히 한국과의 연결성 강화는 한-아 세안 물류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TIACA Executive Summit 2027 유치...350명 이상 참석 예정
- 베트남항공, 한국에서 ECS Group을 화물 GSA로 지정
- 한국은 베트남항공 세 번째로 큰 화물 시장
- 베트남, 전자제품·반도체·신선식품 등 수출 증가 활용
- 동남아 물류 허브 경쟁 심화...싱가포르 vs 베트남

전망

싱가포르는 항공화물 행사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전망이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물동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동남아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물류 인프라 투자와 허브 간 경쟁이 심화될 것임.

시사점

화주 — 동남아 물류 허브 경쟁으로 항공화물 서비스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 향상 가능

포워드 — 싱가포르와 베트남 모두에서 네트워크 확장 기회 증가

항만·선사 — 항공화물 허브 경쟁은 항만 간 연계 물류 수요에도 영향 미칠 수 있음